



무에타이 챔피언·통역사 꿈꾸는 전남대 출신 이 선 화씨

내 인생 장애물에 하이킥 한방

통역사와 무에타이 챔피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학사 출신의 당찬 여성이 있다.

한 몸을 하루 3~4시간의 줄넘기·달리기 등 체력 훈련으로 단련시켰다.

더 적극적으로 권한다고 한다. “요즘 워낙 여대생 살인사건이 많잖아요?”

내달 '한·태 국제전' 첫 시합

이선화(25·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지난해 전남대 중어중문과를 졸업한 후 통역사 공부를 하던 중 격렬한 운동을 하고 싶어 서구 상촌동 '최고 체육관'을 찾았다.

힘한 운동에도 부모님 적극 후원

대학 졸업 후 그녀는 중문학이 적성에 맞지 않아 영어 통역사로 목표를 바꿨다.

대통령 통역하며 경호하는게 꿈

링 위에서는 상대방을 쓰러뜨릴 기세로 달려들지만, 밖에서는 다리 근육과 얼굴에 나는 상처를 걱정하는 옛된 처녀.

우리나라에서 무에타이 선수로 활동 중인 사람은 500여 명, 이중 여자선수는 30명 정도나 이씨처럼 학사출신은 거의 없다고.



대통령 통역사와 무에타이 챔피언이 꿈인 이선화씨가 동료와의 스피링 중 무릎 차기를 하고 있다.

나원침 (7085) 김장두



평등노동자의 중요성을 우리는 3.6.36 최대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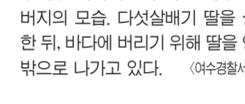
'여수 실종女兒' 아버지가 살해

"재혼에 방해된다" 목졸라 바다에 유기

지난 19일 여수시 교통 주택가에서 실종된 이모(5)양은 아버지가 살해 후 바다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K기업 협력업체 사원인 이씨는 지난 19일 밤 11시58분께 자고 있던 딸을 안고 나와 여수시 교통 D사우나 주차장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700여m 떨어진 여객선 터미널 앞바다에 내다 버린 혐의다.

자친구와 딸 문제로 헤어진데다, 양육 문제로 모친과 잦은 말다툼을 벌이는 등 '딸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죽였다'고 진술했다.



주차장 폐쇄회로에 찍힌 비정형 아버지의 모습. 다섯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바다에 버리기 위해 딸을 안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

경찰은 여수해경 등과 협조, 이양이 유기된 여객선터미널 인근 바다에서 사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성폭행 제안' 실행 고교생 긴급체포

감금 여부 진술 엇갈려

인터넷을 통한 성폭행 사주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북부경찰은 23일 광주 K고 2년 이모(16)군을 긴급체포할 혐의로 긴급체포,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17일 밤 11시께 A(16·고1)양을 광주 북구 자신의 친구(17) 아파트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앞서 광주 S고 1년 김모(16)양 등 여고생 6명은 "우리들 이야기를 나쁘게 말하고 다니는" 이유로 같은 학교 친구 A양을 북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뒤, 인터넷 N 채팅사이트에 'A양과' 성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연락

하라는 글을 올렸었다.

이군의 친구는 당시 이 채팅사이트에 성관계를 희망하는 답신을 보냈으며, 이군은 답신을 보낸 친구의 집에 김양 등이 A양을 끌고 오자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 등은 그러나 "성폭행 후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 3일 동안 감금당했다"는 A양의 주장에 대해선 "A양을 남겨 준 뒤 버스를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며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감금 부분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림에 따라 시내버스 CC TV 분석 등을 실시,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위험수위' 지난해 광주 279건 접수

생활고 맞물려 증가 추세

지난달 중순, 생후 7개월 된 김모 어린이가 광주 S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검사 결과 뇌출혈이 있고 갈비뼈와 허리뼈에 금이 가 있었다.

한 상황에서 아이는 무관심 속에 방치됐고, 부모싸움의 화살이 대상이 됐던 것이다.

24.2% ▲직접적인 '신체 학대' 22.6% ▲'성학대' 4.3% 순이었다.

하는 추세다. 최근 8살과 6살의 남매를 맡겨달라는 한 아버지의 전화는 단적인 사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김영례(39) 상담팀장은 "아무리 생활이 어렵더라도, 아이들의 인권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예인 캐스팅 사이트 조심!

드라마 출연미끼 금품 갈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드라마제작자 사장, 연예인 지망생들로부터 소개비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원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2004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연예인 지망생 43명에게 접근, 자신을 유명 연예인인것 회사 분부장 등으로 소개한 후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소개비나 연예

처 술을 마시고 술값 2천7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원씨는 연예인 지망생들이 인터넷캐스팅 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과 연락처를 올리려는 점을 착안, 캐스팅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유명사이트 10여곳에 접속해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43명 중 대다수가 20대 여성들로 1인당 15만~2천700만원을 원씨에게 빼앗겼으며 원씨의 권유로 성형수술을 한 연예인 지망생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부쩍 늘면서 캐스팅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모 사이트의 경우 회원이 27만4천명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은 진짜 제작자인지 확인도 안하고 돈을 줬다"고 말했다.

경찰, FTA저지 25일 서울집회 불허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5일로 예정된 한미FTA 저지법국민운동본부 주최 '총괄대회'를 금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법무본이 '25일 서울시장 앞 광장에서 5천명이 집회를 열고 을지로, 종각을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며 낸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3일 낮 12시34분께 영광군 대마면의 한 둔사에서 불이나 새끼돼지 450마리가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사해 죽었다.

불이 난 둔사는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전체 1천600㎡ 중 450㎡가 불에 타 소실되거나 그을려 2천6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후 30분 만에 꺼졌다.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전동 번개' (Thunder), '3월 24일' (March 24th), '꽃망을 떨어뜨리는 '봄비'' (Spring rain), and a detailed regional weather map with a table of temperatures and forecasts for various locations.

꽃망을 떨어뜨리는 '봄비'

광주·전남 오늘 강풍 동반 최고 80mm 예고

어제 나주 22도 올 최고 기온

호우예비특보 속, 주말인 24일 광주·전남 지역에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주말인 24일에는 광주·전남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예보했다.

24일 광주·전남의 예상강우량은 30~60mm이며, 남해안 일부 지역엔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24일 오전을 기해 구례·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 등에 호우 예비특보를 내렸다.

어제 나주 22도 올 최고 기온

보인다. 기상청은 또 여수·목포·고흥·장흥·해남·완도·무안·영광·신안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초속 14m, 순간풍속 20m/sec)를,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를 각각 발령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주말인 광주지역의 낮기온은 17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휴일인 25일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3일 낮 최고기온은 나주 22.4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으며 ▲광주 21.1도 ▲고흥 19.5도 ▲해남 18.6도 등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이 평년보다 3~10도 높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중국산 염장 미역

국산으로 속여 판매

식품업체 대표 입건

목포세관은 23일 중국산 염장 미역을 마른 미역으로 재가공, 완도산인 것처럼 판매한 함모(64)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중국 엔타이(烟台) 다연(大連)에서 염장 미역 511t을 수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영암의 D 식품회사에서 세척·탈수·건조 과정을 거쳐 마른 미역으로 재가공한 혐의다.

함씨는 또 이중 92t(10kg 들이 9천208박스)을 박스당 3만7천~4만원에 인천·부산·대구 등지에 판매, 시가 3억4천600만원 상당 권취할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최근 미역 산지인 고흥과 완도의 원초 생산이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의 도매가격이 증전과 같고 ▲중국산 염장 미역을 국내산으로 박스값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 잠복 수사를 끝에 검거했다.

축사 화재--돼지 450마리 불타

23일 낮 12시34분께 영광군 대마면의 한 둔사에서 불이나 새끼돼지 450마리가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사해 죽었다.

불이 난 둔사는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전체 1천600㎡ 중 450㎡가 불에 타 소실되거나 그을려 2천6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후 30분 만에 꺼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7차례 빈집 탄 10대 2명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23일 주택가 빈집과 원룸에 불이 들어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오모(17)군 등 10대 2명을 불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오군은 고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후 지난 3월22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상촌동 모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골프채와 디지털 카메라 등 24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2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오군은 훔친 골프채를 팔러 갔다가 청소년이 골프채를 팔러 온 점을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